

光日 인터뷰

‘조선산업의 전도사’ 박준영 전남지사에 듣는다

“전남의 미래, 고부가 조선산업에 달려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요즘 조선산업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전남 서남권의 리아스식 해안이 조선소 입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조선산업이 낙후된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조선업의 특성과 장점을 꿰뚫어 본 박 지사는 목포, 신안, 해남, 진도 등지에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박 지사는 특히 ‘조선산업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전남지역 조선산업의 비전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식견을 넓히고 있다. 현재 전남 서남권에선 대한조선과 C&S중공업 등 크고 작은 57개의 조선소와 291개 협력업체가 총 3만1천여 명이 고용, 지난해 해 3조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들어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조선산업의 필수자재인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은행권의 돈줄마저 막히기 시작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일부 업체의 경우 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타지역 대형 선박 조선업체들이 전남지역 후방 조선소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선업의 위기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의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 1일 J프로젝트와 F1자동차대회, 영산강 뱃길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도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유의 진지함과 성실함 그리고 확신이 밴 목소리로 박 지사는 조선산업 위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혜의 입지 조건 대한조선 등 57개사 가동중”



-F1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망을 해주십시오.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F1자동차 경주 대회는 반드시 예정대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약을 했고, 또 토목공사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경주장 건설공사가 이미 진행중입니다. F1대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란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F1경주장이 완공되면 전남의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류보다는 관류제에 중점을 두신다면요.

-뱃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일단 강 바닥 준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영산강 뱃길에는 2~3m에 이르는 토사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준설이 마무리되면 일정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게 되고, 영암호, 금호호의 수질도 농업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조선 위기설은 과장 선박 수요확대는 필연 조선업계 시설 경쟁중”



다. 또 수상 레저산업도 활기를 띠 것입니다. 강은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세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수도권에 사람과 SOC가 몰리게 되면 지방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업과 인재가 모두 지방을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나중에 오기로 했던 3M이 경기도로 떠나버린 것이 좋은 예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책임자 입장에서만 좋을 뿐,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결맞은 사업을 가져가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이 허리는 것을 수도권이 하게 되면, 지방은 돈과 사람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은행 등 금융권과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수주한 선박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약속했던 매출을 제때 해주고, 선수금 지급보증(RG)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지역 조선업체들이 3~4년간 만들어야 할 물량을 수주받아놓고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격의 취약점을 몰아야 하고, 심하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도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카지노와 F1경주대회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카지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전남에 건설되기를 한다면 관광급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박산업은 사행산업이 아닌, 하나의 레저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굳이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국인이

“후발 전남조선업체 대형업체 견제 심해 정부가 지원 나서야”



지도와 외국인카지노를 구분하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부득이하다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규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종의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인 중국에 밀린다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한국산 중고 배의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훨씬 높아요. 중국 조선업의 인건비가 한국의 1/3에 불과하다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낮아 우리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선박 수요량이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본질상 국가 간 물동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선박 수요도 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올 들어 일부 금융권에서 지역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타지역 대형 선박 조선업체가 조선산업 위기설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전남의 후방 조선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전남의 조선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타지역 대형 선박업체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암의 현대상호중공업은 도크를 더 만들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군산에 조선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자신들은 왜 시설을 확장하겠습니까.

-전남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근린시설', '다가족(원룸)', '속박입주(모텔)', '오피스텔', '주택', '토지', '농가관련시설', '아파트', '다세대(빌리)', '기타'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es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nd '수원지구 건물임대'. Includes contact info: 010-820-114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건물임대'. Lists various building types and sizes like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3층 340㎡ 분할가능', '4층 340㎡', '5층 340㎡', '6층 200㎡'. Includes contact info: 016-611-3424.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rent like '서구 품양동/대지 210㎡', '서구 화정동/대지 350㎡/건 4F/원룸/보증금 8800만', '서구 석정동/대지 221㎡/단 3F/안집/보증금 3천/월 200만원', '서구 쌍촌동/대지 160㎡/구 한옥1동/매가7천', '서구 쌍촌동/대지 350㎡/2F/건평165㎡/매가2억6천5백/2억5천', '서구 쌍촌동/대지 859㎡/매가4억6천800만원', '서구 마월동/대지 1123㎡/5억5천', '서구 세하동/도로접전/서구 세하동/대지 337㎡/구 한옥1동/매가1억2천', '서구 쌍촌동/대지/600㎡/서구 세하동/대지 480㎡/구 건물1동/매가1억7천만원'. Includes contact info: 062-374-2880.